

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,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

기사입력 2023-09-14 14:58:17



[대한경제=정석한 기자]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(사진 왼쪽 다섯번째)은 14일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(왼쪽 네번째)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했다.

지난 7월 최태진 회장이 취임 인사 차 서울지방조달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"건설업계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"며 서울지방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.

이에 따라 △장기계속공사 초과지출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△적격심사제 낙찰하한을 합리적 개선 △임의적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행위 개선 △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적정 상향 △중심제·중평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△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백 청장은 "건설업계의 현안과제에 동감한다"며 "건의내용에 대해 본청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, 서울시회와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정석한 기자 jobize@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경제부

정석한 기자

jobize@dnews.co.kr

- 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!